

최치원의 역사인식 연구

金福順*

목 차

I. 머리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II. 최치원의 역사인식 형성 배경	중심으로-
III. 고려 사서에 남겨진 최치원의 역사인식	IV. 최치원의 현실적인 역사인식
	V. 맺음말

국문 초록

본고는 최치원의 역사인식에 관한 연구이다. 우선 그의 생애와 저술을 간략히 살피고자 한다. 이는 그가 유학자로서 현실적인 합리주의 사관을 형성하게 된 과정을 역사인식의 배경을 삼고자 하는 것이다.

그의 역사인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첫 부분은 그의 역사인식이 끼친 영향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이다. 이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일연의 『삼국유사』에 나오는 최치원 저술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첫째는 한국 상고사에 관한 인식의 문제이다. 그는 한국 상고사에 있어 기자를 가장 멀리 인식하고 있었다. 『삼국사기』에서 기자를 상한으로 삼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김부식이 유학자로서의 최치원의 인식과 그 궤를 같이 한 때문으로 보았다. 반면 『삼국사기』

* 동국대학교 교수

와 『삼국유사』에서 삼한을 ‘마한-고구려’, ‘변한-백제’, ‘진한-신라’로 연계한 최치원설을 적극 수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둘째는 『제왕연대력』과 중국과 신라와의 관계 설정에 관한 문제이다. 『제왕연대력』에 보이는 왕호의 인식이 김부식에서는 사실주의에 입각한 진전된 모습으로 바뀐 반면에, 일연은 최치원설을 일부 따르고 있음을 비견해 보았다. 태종무열왕의 강조는 두 사서가 같은데, 『삼국사기』에서 문무왕의 당과의 결전을 특기하여 신라의 독자성을 크게 부각시킨 측면은 역사서술의 진전된 모습임을 밝혀 보았다.

셋째는 유학자로서 3교 회통적 인식과 효선쌍미적 인식에 관한 문제이다. 최치원은 유학자이기도 하지만 유불도 3교의 회통적 인식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고려조 전반을 거쳐 비슷한 유형의 학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그는 효선쌍미적인 인식을 선사들의 비명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일연이 『삼국유사』에서 「효선」편을 설정한 것과도 비슷한 맥락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이었다.

다음 부분은 『계원필경집』 등 그의 저술에 보이는 현실적 역사인식이다.

하나는 당 중심으로 형성된 세계관으로 역사를 인식한 사실이다. 그는 합리주의를 표방한 유학자로서 매우 현실적인 역사인식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연호의 중시, 당 중심의 외교관계 등에 주의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최치원과 김부식에 의해 杜撰된 수유 학승 안함의 귀국연대 기사를 정리해 보았다.

다음은 사회개혁론에 드러난 그의 인식이 인재등용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 다음으로는 신라 불교와 풍속을 동아시아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한문문장으로 표기한 점이다. 그에 의해 한문 문장으로 채록된 많은 불교 관계 기사는 고대문화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그는 신라시대의 국제적 상황인식을 가지고 사실적인 역사서술을 남겨 놓음으로써 한국의 역사가로서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정도의 역사인식을 소유한 인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최치원의 역사인식, 『계원필경집』, 『삼국사기』, 『삼국유사』, 한국상고사 인식, 『제왕연대력』, 3교공존론, 중국 연호, 안함, 인재등용의 문제.

I. 머리말

최치원은 유학자로서 당과 신라에서 벼슬살이를 하면서 틈틈이 글을 지어 많은 문장을 남겨 놓았다. 그의 글은 역사가로서의 면모는 보이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통사적인 서술은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자신이 처해있던 현실적인 상황, 즉 주로 문헌을 담당하던 직에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다방면에 걸쳐 역사가 이상의 안목으로 많은 사안을 밝혀 놓았다.

그는 전 생애에 걸쳐 국내외의 여러 곳에 머물면서 석각을 새기는 등의 자취와 함께 글들을 남겨놓았다. 근래 중국 내에서의 관련 역사유적을 중심으로 한 그의 활동양상과 저술이 함께 살피진 논고들이 나오고 있어, 관련 유적이 주는 현장감과 함께 그의 저술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최치원은 신라인으로서의 최대의 저술가인 까닭에 그의 생애 내지는 그의 저술 자체를 연구하거나, 신라사와의 관련 속에서 연구한 논고도 있으며, 문인들의 한중 교류에 관한 내용도 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의 양극적 측면이 보이고 있다. 이에 기존에 나온 여러 연구 성과들을 근간으로 하여 그의 저술과 활동양상을 살펴본다면, 최치원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의 역사인식의 문제도 정리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고는 그의 역사인식에 관한 연구이므로, 본론에 앞서 그의 역사인식을 형성하게 된 생애와 저술을 간략히 살피고자 한다. 이는 그가 유학자로서 현실적인 합리주의 사관을 형성하게 된 과정을 역사인식의 배경을 삼고자 하는 것이다.

그의 역사인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려 한다. 첫 부분은 그의 역사인식이 후대에까지 영향을 끼침으로써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를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일연의 『삼국유사』에서 취사선택된 최치원의 저술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려는 것이다. 첫째는 한국 상고사에

관한 인식의 문제이다. 둘째는 『제왕연대력』과 중국과 신라와의 관계 설정에 관한 문제이다. 셋째는 유학자로서 3교 회통적 인식과 효선쌍미적 인식에 관한 문제이다.

다음 부분은 그가 당대에 인식하였던 현실적 역사인식을 다음과 같이 몇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당 중심으로 형성된 세계관으로 역사를 인식하고 있는 문제, 둘째 사회개혁론에 드러난 인재등용의 문제, 셋째 신라 불교와 풍속을 동아시아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한문문장으로 표기한 점 등에 초점을 맞추어 언급해 보려 한다.

이상의 내용들은 필자가 그동안 틈틈이 써왔던 최치원에 관한 일련의 글들에서 조금씩 언급한 내용도 있고, 그의 역사인식과 관련된 내용을 새로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사실도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들을 정리하여 최치원에 관한 역사인식을 체계화해 보려는 것이다.

II. 최치원 역사인식의 형성 배경

최치원의 역사인식이 형성되는 배경은 그의 생애와 저술에서 찾아낼 수 있으므로, 이를 개괄하여 정리함으로써 그 형성과정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최치원은 어려서부터 文才가 있었고, 유학준비를 위해 이미 기초적인 경전은 신라에서부터 수학하였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12세에 당에 유학하여 빈공진사로 급제하기까지 남들보다 10배(人百己千)의 노력을 경주하였는데,¹⁾ 주로 유교경전과 『문선』 등 시부에 관한 글들을 고구하였다. 그의 문장가적 유학자로서의 소양과 기반은 이 때 이미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는 장안과 낙

1) 최치원 지음, 이상현 옮김, 『계원필경집』 1, 한국고전번역원, 2009, 66~67쪽.
이 글은 최치원 지음, 이상현 옮김, 『계원필경집』 1과 『고운집』의 발간을 기념하여 마련된 지면이므로, 최치원의 원전 등을 인용할 때 위의 책을 참고하여 작성할 것이다.(이하 『계원필경집』 1, 『고운집』으로 생략)

양, 율수현, 양주에서 17년 동안 晚唐의 풍파를 겪으면서, 숙위학생에서 빈공진사로, 율수현위로, 고병의 종사관으로 활동하였다.

그가 문장가로서 펼친 활동이 「격황소서」에서 크게 빛이 난 바 있다. 귀국을 결심하고서 그는 자신이 썼던 글을 『계원필경집』 등에 모아 전해주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이 중국에 있는 동안 머물렀던 곳의 시대적 환경과 체험하였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율수현과 양주가 유학생 내지 재당신라인들과 어떠한 연관 관계에 있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최치원은 신라로 귀국한 이후, 시독검 한림학사 수병부시랑 서서원학사로서 중앙정계에서 활동하다가, 태인·서산·함양군수로서 지방에서 활동하였다.

중앙정계에서 활동한 기간 동안 그는 경세가로서의 사회개혁론을 내세워 자신의 포부를 펴보려 하였지만, 왕경의 신라인들은 그를 문장가로서 높이 평가하였을 뿐이지 정치가로서 신라의 중앙정치에 간여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이어 지방에 나아가 활동한 기간에 그는 지방고을의 책임자로서 태인, 서산, 함양태수를 지내면서도, 신라의 외교문서는 계속 작성하고 있었으며, 시무책 찬진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의 뜻을 관철하려던 것이 허무하게 끝났으므로, 전국을 소요하면서 명필로서의 진가를 석각을 통해 남겨놓았다. 결국 해인사로 은거하게 되었지만, 이곳에서도 그는 「법장화상전」 등의 僧傳과 해인사 관련 글들을 저술하였다. 그는 전 생애를 통해 명문장을 구사한 문필가로서 큰 족적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최치원은 문장가답게 재당시절부터 활동하면서 지은 글들을 엮어 책으로 만들었고, 귀국 이후에도 왕명에 의하거나, 왕실과 사원의 부탁에 의해 많은 글들을 썼다. 질적인 면에서의 탁월함은 말할 나위도 없겠거니와, 양적인 면에서도 신라시대 다른 유학자들과 비교해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많다. 최치원은 신라의 최대문호로서 『동문선』 등에 다양한 장르의 내용이 전하고 있다.²⁾

2) 『동문선』에 실린 내용만 해도 16장르의 195개 작품이 실려 있다.

귀국 이후에도 그는 신라왕을 대신해서 쓴 당에 보내는 외교문서, 신라왕의 명을 받아 수찬한 4개의 비명인 <四山碑銘>, 『제왕연대력』, 「부석존자전」과 「법장화상전」 등 승려전기, 결사문, 해인사 관련 기문, 난랑비서, 향약잡영 5수 등을 남겨 놓았다.³⁾

이 저술들에서 그는 유·불·도 3교를 회통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중국에서부터 있었는데 귀국 이후에도 계속 그 기초를 이어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온전히 전해지는 글이 있는가 하면, 제목만 전하는 글도 있고, 여러 역사책에 단편적으로 전하는 글에 이르기까지 최치원의 글들은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모두 우리 역사상 귀중한 사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때문에 그의 저술들을 활용하여 분석해 본다면, 당대의 역사인식을 드러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그의 글은 동아시아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평가해 볼 때, 그에 대한 긍정적 내지 부정적인 측면의 시각이 있으므로 이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격황소서」의 풀이를 통한 최치원의 한계점을 지적한 논고⁴⁾가 있는가 하면, 최치원에 대한 대당

3) 김복순, 「최치원의 불교관계저술에 대한 검토」 『한국사연구』 43, 1983 ; 김복순, 「최치원의 법장화상전 검토」 『한국사연구』 57, 1987 ; 김복순, 「중국 내 최치원 유적과 계원필경」 『동양미술사학』 2, 2001 ; 장일규, 「최치원의 저술」 『북악사론』 10, 2003 ; 장일규, 「최치원의 화엄승전 찬술과 해인사의 화엄사상」 『신라사학보』 창간호, 2004 ; 박승훈, 「신라말기 최치원의 승전 찬술」 『불교연구』 22, 한국불교연구원, 2005 ; 박승훈, 『최치원의 중국사 탐구와 사산비명 찬술』, 한국사학, 2005.

4) 김철조, 「최치원의 「격황소서」에 대한 일고」 『동아인문학』 9, 2006, 104쪽에서 “그 자신 신라의 비주류 출신이면서도 중국의 비주류 혹은 하천민인 황소를 정벌하는데 앞장 선 최치원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허약한 인식의 소유자이며, 동시에 중국에 동화되어 자신이 마치 중국 중심부의 주류인양 행세하는 것이 중국 변방국가의 비주류임을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 허위의식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 문장과 글쓰기에 대한 평가는 그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만 평가할 수 없다. 탈역사적 문장, 수사적 기교로만 이루어진 문장을 명문장이라고 평가하는 자세는 문학의 역사적 책무를 망각하는 것이다 … 이러한 교훈을 우리는 최치원의 「격

시기의 고찰이 중국학자들에 의해 본격화되면서 한·중·일의 공동 어문학을 조성한 중심인물로 설정되기도 하기 때문이다.⁵⁾

Ⅲ. 고려 사서에 남겨진 최치원의 역사인식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최치원의 역사인식에 관해서는 많은 논고들이 나온 바 있다. 즉, 『계원필경집』의 내용과 함께 귀국 이후에 쓴 저술에서 그가 신라인으로서 드러내고자 하였던 역사인식과 사회개혁론, 그리고 우리문화와 중국문화에 대한 인식, 자신의 문장에 대한 자부심 등이다. 특히 『제왕연대력』에 주목한 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⁶⁾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그의 역사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황소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5) 박병선, 「당대 한중 문인의 교류에 관한 연구-동국 문종 최치원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46, 2007, 466~467쪽에서는 “8~9C 즉 만당시기는 한자문화권인 동아시아에서 한시문학이 한·중·일 삼국에서 확산되어 공동어문학이 형성되던 시기이다. 최치원은 한자문화권이 형성되던 만당시기 동아시아의 중심국가인 한·중·일 삼국에서 문학명성을 구가하며 공동어문학의 형성과 발전에 공헌했으며, 나말여초 한문학의 정립에도 기여했다 … 근래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최치원을 중심으로 한중교류문화사에 대한 연구가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한 동아시아에서 공동어문학이 형성되던 만당 시기 한중문인 상호간 교류와 함께 전개된 문화교류의 면모가 보다 명확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 6) 조인성, 「최치원의 역사서술」 『역사학보』 94·95합, 1982 ; 이현혜, 「최치원의 역사인식」 『명지사론』 창간호, 1983 ; 이재운, 『최치원 연구』, 1999 ; 최경숙, 「최치원의 역사인식」 『고운의 사상과 문학』, 1997 ; 최영성, 「고운 최치원의 역사인식 연구」 『한국사상사학』 11, 1998 ; 장일규, 「최치원의 신라전통 인식과 『제왕연대력』의 찬술」 『한국사학사학보』 6, 2006.

최치원의 역사인식은 고려조의 사서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잘 드러나 있다. 최치원은 고려조에서 내사령, 문창후로 봉해진데서 나타나듯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진 인물이다.⁷⁾ 때문에 김부식과 일연은 그들의 저술에 최치원의 저술을 많이 인용하여 서술함으로써 그의 저술이 보존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이 최치원의 역사인식을 재추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 상고사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최치원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삼한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 가장 오래된 역사에 대한 인식이었다. 그런데 그는 다른 곳에서 기자에 관해 언급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보이므로, 그가 가장 멀리 인식한 것은 기자에 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 1) 신이 살피 보건대, 본국은 ... 더군다나 9주의 남은 법도에 의지하고 일찌감치 8조의 교훈을 받았는데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矧假九疇之餘範 早襲八條之教源). 말할 때에는 반드시 하늘을 두려워하고, 걸어다닐 때에는 모두 길을 양보하였으니, 이는 대개 仁賢의 교화를 받아서 군자의 나라라는 이름에 실제로 부합되었기 때문입니다.⁸⁾

그는 신라의 연원을 九疇와 八條를 빗대어 언급하였다. 즉 9주는 홍범구주로 기자가 주 무왕을 위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9가지 방법을 전해준 것이고, 8조는 기자가 남겼다는 8조의 법금을 말하므로, 仁賢인 箕子의 교화를 받은 군자국으로서의 신라의 근원을 서술한 것이다.

최치원은 전문적인 통사를 편찬하지는 않았지만, 『사기』의 기자동래설, 『삼국지』 「동이전」의 기록을 근거로, 신라가 일찍부터 그 문화의 기원을 중국에 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관념세계를 합리화시킨 것으로 보아왔다.⁹⁾

7) 김복순, 「고려의 최치원 만들기-「지증대사비」의 건립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32, 2008, 69~90쪽.

8) 최치원, 「양위표」 『동문선』 권43(『고운집』, 196쪽).

9) 이현해, 앞의 논문, 9쪽.

최치원이 중국 고대 사서인 『사기』와 『삼국지』 등에 보이는 기자까지만 한국 상고사의 상한으로 언급한 것은, 그가 유학자로서 怪力亂神은 언급하지 않고, 앞선 史書에 나오는 내용을 述而不作의 태도로 찬술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김부식과 이후의 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나오는 내용에 의거해 보면, 김부식은 단군으로 추정되는 평양의 仙人에 대한 언급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2) (동천왕)21년 평양성을 쌓아 백성과 廟社를 읍졌다. 평양은 본래 仙人 왕검이 살던 곳이다. 혹은 왕의 도읍 왕험이라고도 한다.¹⁰⁾

김부식은 종래의 기록을 그대로 轉載하고 설화와 신화를 그대로 기술하던 고대의 역사학으로부터 탈피하여 나름대로 철저하게 문헌기록에 의존하여 역사를 서술하였다. 또한 사료의 사실 여부를 검토한 후 취사선택하여 수록 하고도 있다. 그리고 자신의 견지에서 역사적 제 사실을 비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설화형태의 역사인식을 주조로 하면서 전통에 대한 당대적 재인식과 강조를 목적으로 하여 서로 전승되어 오던 사료에 대하여 유교문화적인 재인식을 시도한 것이 바로 『삼국사기』의 편찬인 것이다. 이에 그는 우리의 관점에서만 역사를 논하지 않고 당시 동아시아 세계에서 보편적 이념으로 기능하고 있던 유교라는 관점에서 자국의 역사를 인식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한국 중세 사학의 기초를 닦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고대사를 편찬하면서 유교사관에 배치되는 고대 문화적 요소를 전부 삭제함으로써 큰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유학자로서 다음의 내용에 보이듯이 한국 상고사의 상한을 箕子로 못 박고 있다는 점이다.¹¹⁾

10) 『삼국사기』 권17 「동천왕」 21년조

11) 이에 대한 선학들의 언급은 이렇다. 김철준, 1973, 앞의 논문(『한국의 역사인식』 상, 창작과 비평사, 1976, 107쪽)에서 “고대적 체질의 부인과 유교사관의 확립이라는 김부식사학의 성격은 스스로 고대문화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좁혔을 뿐 아니라, 그 인식의 시대폭도 제한하게 되어 저절로 고조선사를 취급하지 않게 된 것이었다”라고 하였고, 한영우, 「고려시대의 역사인식

3) 해동에 나라가 있는 지는 오래이다.箕子가 주 왕실에서 책봉을 받음으로부터 위만이 한나라 초 稱王할 때까지 연대가 막연하고 문헌이 소략하여 진실로 상세함을 얻을 수 없다. 삼국이 정립함에 이르러서는 세상에 전해짐이 더욱 많아졌다. 신라는 56왕 992년, 고구려는 28왕 705년, 백제는 31왕 678년으로 그 시작과 끝을 살필 수가 있으므로, 삼국의 연표를 짓는다.(당나라 가연충이 이르기를 ‘고려는 한나라 때부터 나라가 있어 지금 900년이다’고 한 것은 그릇된 것이다)¹²⁾

반면 일연은 최치원과 김부식이 쓰지 않았던 단군 등의 상고사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어 신이사관을 나타내 주고 있다. 중국적 세계관은 인정하지만, 우리도 중국과 동등한 연원을 가진 나라로 인식한 것으로, 최치원과 김부식의 역사인식 위에 신이사관을 더한 면을 보인 것이다.¹³⁾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B.C.57년부터 신라, 고구려, 백제 3국의 역사만을 다루고 있다.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조차도 『삼국사절요』, 『동국통감』에서 삼국의 본기에 앞서 「外紀」를 설정하여 단군과 기자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사실과 비견되는 모습이다. 조선시대 사서에서의 「외기」의 설정은 고려 말의 역사인식을 조선 초에 수용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김부식의 수사방식 역시 앞선 유학자인 최치원의 역사인식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그가 삼국 이전의 역사를 언급하지 않고, 다만 「연표」에서箕子와 위만에서부터 우리 역사의 시작을 언급한 것은 전적으로 최치원의 유학자로

과 역사서술,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상, 1994, 48쪽에서 “怪力亂神은 말하지 않는다”는 신화에 대한 비판정신이 결과적으로 단군신화를 삭제하게 만들었고, 無徵不信이라는 증거주의 정신이 삼한의 역사를 매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삼국사기』의 연표에서만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의 실재를 가볍게 언급하고 박혁거세의 신라건국에서부터 국사의 시발점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고조선을 소홀하게 다루어 고조선 내부에서 성장한 고주몽 이전의 고구려의 존재를 몰각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12) 『삼국사기』 권29 「연표」 상

13) 이기백,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의의」 『진단학보』 36, 1973 ; 고익진, 「삼국유사의 찬술고」 『한국사연구』 38, 1982.

서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은 삼한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언급한 바 있다. 즉 최치원은 삼한이 삼국으로 계승되었다고 보는 삼한삼국 계승론과 삼한이 곧 삼국이라는 인식론으로 보는 주장이 있다.

삼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최치원설을 인용하여 ‘마한-고구려’, ‘변한-백제’, ‘진한-신라’의 연계 내용을 전해주고 있다.

4) a- 신라의 최치원이 말하기를 “마한은 곧 고구려이고, 변한은 백제이며, 진한은 신라이다”라고 하였다. b- 삼가 듣건대 동해 밖에 세 나라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마한 변한 진한입니다. 마한은 고(구)려요, 변한은 백제이며, 진한은 신라입니다.¹⁴⁾

5) a- 최치원은 이렇게 말했다. “마한은 고구려이고, 진한은 신라다”(『삼국사기』 신라)本紀에 의하면, 신라가 먼저 갑자년에 일어나고 고구려는 뒤에 갑신년에 일어났다고 하였다. 이렇게 말한 것은 조선왕 준을 두고 말한 것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동명왕이 일어날 때에 마한까지 병합하여 가졌던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고구려를 마한이라고 부른다. 지금 사람들이 혹 금마산을 주목하여 마한이 백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개 잘못이다. 고구려 땅에 본래 마읍산이 있었기 때문에 마한이라 이름지은 것이다. b- 또 최치원은 변한은 바로 백제다라고 하였다 … 마땅히 古賢의 말을 좇는 것이 옳을 것이다. c- 또 최치원은 이렇게 말했다. “진한은 본래 연나라 사람이 피난해 와 있던 곳이다. 그런 때문에 潑水의 이름을 따서 그들이 사는 읍과 마을을 사탁, 집탁이라고 불렀다”¹⁵⁾

삼한삼국 계승론 내지 삼한이 곧 삼국이라는 관념은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그 위치를 어디에 비정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학자들이 언급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¹⁶⁾

14) a-『삼국사기』 권34 지리지, b- 권46 최치원전.

15) a-『삼국유사』 권1 「마한」조, b-「변한 백제」조, c-「진한」조

그런데 근래 최치원의 마한-고구려 계승인식과 관련한 연구에서 여러 이견이 나온 바 있다. 즉 최치원이 중국군현과 대립했던 마한을 고구려와 자의적으로 연결하여, 그 후예인 발해의 당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축소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러한 계승인식이 나온 것으로써, 신라가 발해와 대립하고 있던 현실의 산물이라는 견해가 있다.¹⁷⁾ 이에 앞서 최치원이 『제왕연대력』을 제작하게 된 대외적인 의도로서 고구려를 이어 일어난 발해에 대한 경계심의 발로였음을 주장한 논고가 있다.¹⁸⁾ 반면 고구려의 마한 계승인식이 고려시대의 史書에 집중적으로 소개된 것은 고구려의 평양천도를 통해 형성된 고조선 계승인식이 준왕의 남래로 마한과 연결되었고, 보덕국의 금마지역 건립과 연결되어 마한에서 고구려로의 국가계승인식이 확립된 것이라는 주장이다.¹⁹⁾

이는 신라와 발해를 보는 관점의 문제와도 연결된 것으로, 남북국문제와 관련하여 언급한 선학의 연구에 이어, 신라인의 양면적 인식을 나타내 준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있다.²⁰⁾ 그러나 최치원이 현실적으로 발해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하였지만, 삼한삼국 계승론은 삼국의 연원을 좀 더 올려 보고자 했던 그의 의도에서 나왔다고 하겠다. 즉 箕子로부터 삼국과의 사이에 존재한 삼한과의 계승을 통해 고대사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 것이다. 김부식과 일연은 그의 설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삼한에 관한 내용에 활용한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로 『제왕연대력』과 중국과 신라의 관계 설정 문제이다.

-
- 16) 김정배, 「삼한 위치에 대한 종래설과 문화성격의 검토」 『사학연구』 20, 1968, 130~139쪽.
 17) 이도학, 「최치원의 고구려 인식」 『한국사상사학』 24, 2005, 199~222쪽.
 18) 이재운, 앞의 논문, 14~18쪽.
 19) 조범중, 「고구려의 마한계승 인식론에 대한 검토」 『한국사연구』 102, 1998, 55~74쪽.
 20) 이우성, 「남북국시대와 최치원」 『창작과 비평』 10-4, 1975 ; 한규철, 「신라와 발해의 정치적 교섭과정-남북국의 사신파견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43, 1983 ; 송기호, 「발해에 대한 신라의 양면적 인식과 그 배경」 『한국사론』 19, 1988 ; 조이욱, 「신라시대 발해관의 변천」 『이화사학연구』 28, 2001.

『제왕연대력』은 중국의 帝와 신라의 王으로 표기된 중국과 신라의 역사적 사실을 비교 서술한 연표로,²¹⁾ 최치원은 신라의 왕호를 사실주의로 표기하지 않고, 신라의 거서간, 니사금, 마립간 등의 호칭이 비루하다 하여 전부 왕으로 바꾸어 쓴 것이다.²²⁾

이에 대해 일언은 『삼국유사』 「기이」편에서 혁거세왕, 남해왕, 노례왕, 탈해왕, 실성왕, 지철로왕 등으로 표기하고 있어 최치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또한 『삼국유사』 「왕력」에는 남해차차웅, 노례니질금, 나물마립간 등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 연호를 큰 글씨로 표기하여 중심기준으로 삼은 표기법과 삼국 이전의 국가는 모두 제외한 것은 최치원의 견해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반영해 주고 있다.²³⁾

반면 김부식은 역사서술의 사실주의를 택해서 거서간 등을 그대로 쓰고 있다. 이는 역사인식이 진진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당과 대면하고 있던 최치원과는 달리 김부식으로는 勝朝, 즉 전 왕조의 역사라는 점에서 부담이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제왕연대력』에 포함되는 나라로 중국과 삼국까지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개 인정하고 있으나, 가야와 발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²⁴⁾

다음은 鄉樂과 鄉史라는 용어를 통해 본 중국과 신라와의 관계 설정의 문제이다.

이는 중국의 당악과 당사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음악을 향악이라고 하고 우리기록을 향사라고 한 것이다. 향악은 최치원의 향악잡영이란 표현 외에 『삼국사기』 박제상과 김인문의 내용에도 보이고 있다.²⁵⁾ 이들은 모두 당과

21) 조인성, 앞의 논문, 52쪽 ; 장일규, 앞의 논문 『한국사학사학보』 6, 2002, 25쪽.

22) 『삼국사기』 권4 지증마립간 즉위년조 史論

23) 이기백, 「삼국유사 왕력편 검토」, 『역사학보』 107, 1985, 1~13쪽 ; 김상현, 「삼국유사 왕력편 검토-왕력 찬자에 대한 의문-」, 『동양학』 15, 1985, 221~237쪽.

24) 조인성은 가야를 포함시킨 반면 발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재운은 발해는 포함하였을 것으로 보았지만 가야는 포함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왕연대력』과 관련한 자세한 논증은 별도로 준비할 예정이다.

고구려, 왜 등 신라와 국제관계를 가진 인물들로서 혹 대외적인 표현을 할 때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향악이라는 표현은 중국의 당악에 대비해서 향악이라고 하였던 것인데, 조선조에 당악을 향악으로 바꾸는 과정이 나오고 있다. 결국 향악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된 명칭으로, 기록상으로 최치원이 언급한 향악이라는 설정에서부터 우리의 것을 鄕으로 표기한 것이 아닌가 한다.²⁶⁾ 즉 유학자로서 『제왕연대력』에서의 중국과의 관계설정이 향악, 향사라는 용어를 사서에 정착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으로 김유신과 문무왕에 대한 인식도 당나라와의 외교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정국에서는 태종무열왕을 강조하는 서술로 변화된 점이다. 최치원은 「무염화상비문」과 「상태사시증장」에서 태종무열왕을 강조한 것이 보이고 있다.²⁷⁾ 그것은 당유학생 출신의 최치원이 당에 직접 가서 청병외교를 펼친 김춘추의 입장을 잘 이해하였을 뿐 아니라,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라를 고수한 문무왕과 김유신보다는 태종무열왕을 내세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당나라 사서에서 설인귀, 고간, 유인궤, 이근행이 나당전쟁에 참여한 내용을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문무왕을 권6과 권7에 입전하면서 나당연합군으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대동강 이남의 영토마저 넘보는 당나라군과 결전을 벌인 부분을 특기하고 있다. 이는 김부식이 승조로서의 당을 최치원만큼 의식하지 않은 까닭에,

25) 『삼국사기』 권44 「김인문」전, 권45 「박제상」전

26) 그것은 鄕歌라는 용어도 『삼국사기』 권11 진성왕 2년 춘2월조에 보일 뿐, 실제로 향가는 현금포곡, 대도곡, 문군곡 등 곡명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27) 「무염화상비문」(『고운집』, 349쪽) “옛날 무열대왕이 을찬으로 있었을 적에, 예맥의 정벌에 필요한 원군을 청할 계책을 가지고 진덕여왕의 명을 받들어 소릉황제(당태종)를 섬돌 아래에서 알현하였다. 그 때 정식을 받들고 복장을 바꾸기를 원한다고 면대하여 진달하니, 천자가 가상하게 여겨 윤희하고는 조정에서 중화의 복식을 내리는 한편 특진의 지위를 수여하였다 …” 『삼국사기』 권46 「최치원전」 “이때 우리 무열대왕이 온갖 정성을 다해 한 지방의 어려움을 평정하는데 도와줄 것을 요청했으니 … 오늘날까지 300여 년 동안 한 지방이 무사하고 동방이 평안하였던 것은 바로 우리 무열대왕의 공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을 완수한 문무왕을 강조하여 드러냄으로써 역사서술에 있어 최치원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²⁸⁾

셋째로 유학자로서 3교 회통적 인식을 가지고 자료를 정리해 주었고, 효선 쌍미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을 늘 腐儒로 표현하면서도 유학자임을 잊지 않고 있지만, 3교 각각의 공능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즉 불교는 호국을, 유교는 정치를, 도교는 길흉화복을 각각 맡고 이 3교가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신라 하대 경문왕과 정강왕 대의 유불 일치론이 불교의 출가를 둘러싼 신라사회의 유불대립을 유교를 중심으로 조화하려는 경향에서 추구되었다고 보기도 하고,²⁹⁾ 유불 일치론을 포함한 3교 융합의 풍조가 당시 지식층의 대세였다고 보기도 한다.³⁰⁾

그렇지만 최치원이 활동하게 되는 진성여왕 시대는 정치적인 불안 속에서 나라의 안위가 걱정되던 때였다. 때문에 그는 유·불·도 3교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공능을 인식하면서, 만당의 시기에 황소의 난을 당해 인식하고 있던 3교의 공능을 그대로 신라에 대입시켜 인식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그가 해인사에 은거하게 된 것은 유학자였지만 3교에 대한 회통적 입장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은거 이후 「법장화상전」과 「부석존자전」 등의 승전 찬술과 해인사 관련 저술들은 그의 불교 이해를 대변해 주고 있기도 하다.

최치원의 이러한 인식은 외침이 잦았던 고려조에서도 널리 수용되었다. 그의 3교 융회적 입장은 최언위, 최승로 그리고 고려 유학을 부흥시킨 최충에게도 보이고 있다. 즉 고려 현종이 안종의 뜻을 받들어 세운 흥경사의 갈기를 쓴 최충의 사고가 3교공존론이었음을 밝힌 논고에 의하면,³¹⁾ 최승로로 대표되는 고려 전기 유학 관료들은 修身은 불교가, 治國은 유교가 맡아서 한

28) 제미슨, 「나당동맹의 와해-한중기사 취사의 비교」 『역사학보』 44, 1969.

29) 김영미, 「신라 하대 유불일치론과 그 의의」 『백산학보』 52, 1999, 917~919쪽.

30) 남동신, 「나말여초 전환기의 지식인 최치원」 『강좌 한국고대사』 8, 2002, 300~301쪽.

31) 이인재, 「고려 전기 흥경사 창건과 3교 공존론」 『한국사학보』 23, 2006, 114~118쪽.

다는 양교역할분담론적인 사고를 하였는데, 최종에 이르면 불교용어인 化城을 도교나 유교의 蘊廬와 逆旅로 대비시키면서 3교 공존을 도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최승로의 경우 “3교는 각기 맡은 업이 있어 행함에 차이가 있으니 섞이어 하나로 할 수 없다”³²⁾는 입장은, 최치원이 3교의 공능을 각각 이해한 것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3교는 같은 것이 아니지만 治性, 즉 성품을 다스리는 데에 있어 수행방식이 盡性, 鍊性, 見性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곳을 지향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3교는 상호 공능을 인정하고 서로 비교해 가면서 3교의 공존을 도모한 것이 3교 공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려의 유학자들 가운데 출가는 하지 않으면서 불교에 귀의한 거사로서 생활한 이들이라 할 수 있는 이자연, 윤언이, 권단, 채홍철 등에게서 나타났던 사안으로,³³⁾ 해인사에 은거하여 거사로서 생을 마친 최치원에게도 보이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의 이러한 인식은 많은 불교관계 저술을 남기게 하였고, 고대문화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서에서는 불교관계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김부식도 대각국사 의천의 비문을 찬술한 것은 최치원의 예를 참고한 것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김부식은 최치원이 국제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로서 당위주의 역사서술을 한 점에서는 후한 점수를 주고 있지만 그가 불교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이후 조선조의 유학자들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음으로 일연의 『삼국유사』에 나오는 孝善雙美적 인식이 최치원이 찬술한 선사들의 비명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몽고의 압제 하에서 전 생애를 보낸 일연은 유교와 불교를 각기 孝와 善으로 표현하여, 신라인들이 조화를 잘 이루었음을 효선쌍미의 개념을 통해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32) 『고려사』 권93 「최승로전」

33) 도현철, 「원천석의 안회적 군자관과 유불도삼교일리론」 『운곡원천석연구논총』, 2001, 280~281쪽.

즉 김부식이 『삼국사기』 권48 「성각」전을 세워, 성각이 출가하였다가 환속하여 부모를 공양한 것을 특기하여 **효**보다 **충**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연은 성각에 대해 『삼국유사』에서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불만을 표시하였다.³⁴⁾ 오히려 그는 『삼국유사』에 「**孝善**」편을 설정하고 **진정사**가 **효** 선쌍미를 실천한 것을 드러내었다. 즉 **아들의 출가와 부모에 대한 추복**을 선과 **효**로 보아, **효와 선**이 모두 아름다운 **행실**이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치원은 **선사들의 비명을 찬술**하면서 이들의 **출가와 효의 문제를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다.

- 6) a- 처음 모친이 꿈을 꾸니, 한 거인이 나타나 고하기를 “나는 옛날 勝見佛(비바시불)의 말세에 승려가 되었는데, 성을 잘 났으므로 오래도록 용의 과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업보가 끝나서 法孫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묘한 일연에 의탁하여 자비의 교화를 넓히고자 합니다” 하였다. 이 꿈을 꾸고는 임신하여 거의 400일이 지난 灌佛日 아침에 탄생하였다.
- b- 9세에 부친을 여의고는 너무 슬퍼한 나머지 거의 목숨을 잃을 정도로 몸이 상하였다. 이에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는 승려가 가련하게 여겨 타이르기를, “허깨비 같은 몸은 사라지기 쉽고, 장한 뜻은 성취하기 어렵다. 옛날 부처가 부모의 은혜를 갚을 적에 큰 방편을 사용한 일이 있으니, 그대는 힘쓸지어다” 하였는데, 이 말을 듣고 깨달은 점이 있어서 호곡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모친에게 아뢰어 불도에 귀의하겠다고 청하니, 모친이 그가 어린 것을 애처롭게 여기고 또 집안을 보전할 주인이 없는 것을 염려하여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처가 왕성을 몰래 빠져나간 옛일을 귀로 듣고는 도망쳐서 부석산으로 가서 수학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홀연히 가슴이 뛰며 마음이 불안해져서 자리를 여러 번 옮겼는데, 이윽고 倚閭(모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급히 귀성하자 병도 나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이 일을 阮孝緒의 고사에 견

34) 김복순, 「『삼국유사』 ‘진정사 효선쌍미’ 조와 일연과 김부식의 효인식」 『신라인들은 **孝**와 **善**을 어떻게 실천했는가?』(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30), 2009, 37~60쪽.

주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사가 병에 전염되었는데 의원에게 보여도 아무런 효험이 없었고, 여러 곳에 점을 쳐 보아도 누구나 말하기를 “큰 신령인 부처 아래에다 이름을 두어야 좋을 것이다”하였다. 모친이 예전의 태몽을 떠올리고는 시험삼아 方袍(가사)를 몸 위에 덮어주고 울면서 맹세하여 말하기를, “이 병이 낫기만 한다면 부처님의 자식으로 바치겠습니다”하였는데, 이틀 밤을 자고 나자 병이 실제로 깨끗이 나았다. 이렇게 하여 위로는 염려하는 모친을 깨닫게 하고 끝내는 평소의 뜻을 이름으로써, 舐犢(어버이)로 하여금 애정을 끊게 하고 飲蛇(의심하는 자)로 하여금 의심을 풀게 하였으니, 효감의 기이함이 그 셋째이다. c- 함통 8년(867, 경문왕 7) 정해에 단월인 옹주가 여금 등을 시켜 가람의 토지와 노비문서를 건네주며 승려의 傳舍로 삼게 하고 영원히 바뀌는 일이 없게 하였다. 대사가 이 일을 계기로 …중략… 마침내 건부 6년(879, 현강왕 5)에 장 12구와 전 500결을 회사하여 사원에 소속되게 하였다 … 이는 밖으로는 군신이 땅을 보태도록 도와주고, 안으로는 부모가 천상에 태어나도록 이바지 한 것으로서³⁵⁾

- 7) a- 왕성에 들어가서 모친을 찾아보니, 모친이 크게 환희하며 말하기를, “돌이켜 보건대, 내가 옛날에 꿈을 꾸는 것은 바로 우담이 한 번 꽃을 피운 것이 아니겠느냐. 내세에 제도되기를 바라노니. 내가 다시 倚門(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흔들리지 않으리다”하였다.³⁶⁾
- 8) a- 부친은 창원이라고 하는데, 재가 중에 출가인의 행동을 보였다. 모친 고씨가 일찍이 낮에 잠깐 잠든 사이에 꿈을 꾸니 범승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가 어머니의 아들이 되고자 합니다”하고는 유리병을 주는 것이었다. 이 꿈을 꾸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사를 잉태하였다. … 머리를 깎은 아동 때부터 관을 쓴 어른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은혜를 갚으려는 뜻이 절실해서 잠시도 잊은 적이 있지 않았다. b- 아버지의 상을

35) a-『고운집』 425~426쪽, b- 427~428쪽, c- 433~434쪽.

36) a-『고운집』 329쪽.

당해서는 흠을 직접 등에 지고 날라 봉분하고는 말하기를, “길러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애오라지 힘닿는 대로 보답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제 稀微의 경지(도)를 마음속으로 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뒤옹박처럼 젊은 나이에 그냥 한 곳에만 죽치고 있어서야 되겠는가”하였다. c- 원화 5년(810, 헌덕왕2)에 승산 소림사 유리단에서 구족계를 받았으니, 이는 聖善(모친)의 예전의 꿈과 부절을 합친 것처럼 완전히 들어맞는 것이었다.³⁷⁾

위의 내용은 최치원이 지증대사, 무염화상, 진감선사들의 비문을 쓸 진성여왕 당시에도 출가의 문제는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마찰을 야기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치원은 지증대사가 효감의 기이함으로 어머니가 설복하므로써 출가하여 큰 뜻을 이룬 것을 6)에 보이듯이 잘 서술하고 있고, 무염화상이 큰 인물이 되어 당나라에서 귀국하여 신라의 도성에 들어오자, 다시는 환속해서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겠다고 한 사실을 7)에서와 같이 서술하고 있으며, 진감선사가 부모님을 잘 봉양한 후 출가하여 뜻을 이룬 것을 8)에서와 같이 찬술하였다.

특히 6)-c에 보이는 것과 같이 지증대사가 자신 소유의 토지를 사찰에 기진한 것이 부모가 천상에 태어나도록 이바지한 것이라는 최치원의 서술은 일연의 효선쌍미의 의도와 잘 들어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연은 최치원의 유불 이해에 공감하여, 그의 설을 『삼국유사』에 적극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37) a-『고운집』 361쪽, b-362쪽, c-364쪽.

IV. 최치원의 현실적인 역사인식

최치원이 합리주의적인 유학자라는 점은 주지하는 사실로서, 그의 역사인식은 매우 현실적인 측면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그는 당대의 기록을 많이 남긴 정치가이자 경제가였다. 때문에 그는 한림학사 직에 있으면서 현실의 문제를 과거사에 투영하여 수많은 고사성어로 구성된 내용을, 46 변려체의 화려한 문체로 서술하였다. 예를 들면, 『삼국사기』 권46 「최치원」전에 실려 있는 「상태사시증장」은 신라의 역사를 삼한삼국, 중국과의 관계 등 장황하게 기술해 놓고, 그로부터 연유된 현재의 상황을 기술하여 신라의 입장과 주장을 상술하고 있다. 현재의 문제를 과거와 연결하여 수많은 사례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³⁸⁾

이러한 그의 인식은 다음에 언급할 몇몇 내용의 전반적인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첫째로 그의 역사인식은 당나라를 중심에 둔 세계관을 기본 바탕으로 한 특징을 보인다는 점이다.

최치원은 12세의 어린 나이에 조기유학생으로 당에 유학하여 당나라의 진사, 현위, 종사관을 지내고 17년 만인 29세에 신라에 왔으므로, 그가 당 위주의 세계관을 가지게 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그의 저술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소중화적 자존의식에 대해, 중국의 제후국 가운데 중국과 가장 유사한 나라라고 자부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³⁹⁾ 혹은 자기 역사와 문화를 동방문화권의 중심주체로 인식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⁴⁰⁾

38) 김복순, 「최치원의 해외체험과 문화수용」 『한국문화연구』 10,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소, 2006, 15~18쪽.

39) 이기동, 「고대국가의 역사인식」 『한국사론』 6, 국사편찬위원회, 1979 ; 조인성, 앞의 논문.

40) 이현해, 최경숙, 이재운, 최영성, 앞의 논문.

그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보인 예를 그의 저술 속에서 들어 보면 이렇다. 우선 하나는 중국 연호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치원이 『계원필경집』 권1의 제일 첫머리에 「賀改年號表」⁴¹⁾를 배치해 놓은 것은 그가 얼마나 연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웅변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 하나는 「법장화상전」에서 그가 신라인으로 중국 화엄종의 제3조 현수 법장의 전기를 쓴 것이 신라가 당의 연호인 永徽를 처음 쓴 것에 비유할 정도로 자부심을 내보인 바도 있다.⁴²⁾ 이는 그가 당나라를 세계시장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신라인으로 당당히 자신의 저술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하나는 그가 찬술한 「무염화상비문」에서 낭해 무염화상의 입적시기를 당의 文德 연호와 연결시켜, 화상의 덕을 첫머리에 드러내고 있다.⁴³⁾

이상의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그의 중국 연호 중시 현상은,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삼국유사』 왕력에서도 이를 차용하여 연호를 연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하는 등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다음 하나는 신라 하대 선사들의 선조의 근원을 중국에서 찾기도 하였는데, 진감선사의 선조를 중국의 華族으로 비유한 것을 말한다.⁴⁴⁾ 이러한 그의 저술은 나말여초 선사비문을 작성한 유학자들의 전범이 되기도 하여 많은 선사들의 선조를 중국에서 구하는 현상이 있기도 하였다.⁴⁵⁾

41) 당이 廣明 원년(880)을 中和 원년(881)으로 고친 것에 대한 축하의 글.

42) 김복순, 「최치원의 해외체험과 동아시아적 소통의 문제」 『신라문화』 33, 2009, 238~239쪽. 최치원은 신라가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는 것을 현재 우리가 서기를 쓰는 것 정도로 생각한 것으로, 그가 보다 넓은 세계인 동아시아적 세계관 속에서의 체험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즉 영희 연호의 사용을 신라가 동아시아 세계의 일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최치원 자신이 쓴 글이 동아시아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작품임을 언급한 것이다.

43) 『고운집』, 311쪽.

44) 「진감선사비문」 “선사의 法諱는 혜소요 속성은 최씨이다. 그의 선조는 漢族으로 산둥에서 벼슬하는 집안이였다. 수나라군대가 …” (『고운집』, 360쪽)

45) 이기백, 「육두품연구」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977, 48쪽에서는 최치원조차도 진감의 선조는 고구려인이었을 텐데, 이를 윤색하여 중국에서 가

그런데 그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보이는 중에서도 특히 당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신라와 수나라와의 관계 설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신라는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수나라 유학승인 원광과 안함(혹은 안홍)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컸다. 원광의 「乞師表」작성⁴⁶⁾과 안함의 수문제 불교치국책의 도입과 같은 것이다.⁴⁷⁾ 안함은 안홍과 같은 인물로 보고 있는데, 『해동고승전』에 의하면, 신라 최초의 국비 유학승으로 기록되어 있는 안함은 진평왕 23년인 601년에서 진평왕 27년인 605년 사이에 중국에 다녀왔다.⁴⁸⁾ 즉 안함은 수에 유학하였다가 서역출신 삼장법사 3인인 북천축 오장국의 비마라진제, 농가타, 마두라국의 불타승가와 수나라 승려 2인을 대동하고 귀국하였다. 이들은 황룡사에 머물면서 밀교계통의 경전으로 추정되는 『진단향화성광묘녀경』을 번역해 내고, 신라 승 담화는 筆受를 하였다.

9) 최치원이 지은 「의상전」에 말하기를 “의상은 진평왕 건복 42년(625)에 태어났다. 이 해에 동방의 성인 안홍법사가 서역의 세 사람의 삼장과 중국 승려 두 사람과 함께 당나라에서 돌아왔다”고 하였다. 주석하여 말하기를 “북인도 오장국의 毘摩羅眞諦는 44세, 農加陀는 46세, 마두라국의 佛陀僧伽는 46세였다. 52개 국을 경유하여 비로소 중국에 이르렀고, 드디어 신라에 왔다. 황

저다 불인 것으로 보고 있다.

- 46) 『삼국사기』 권4 진평왕 30년, 김복순, 「원광법사의 행적에 관한 종합적 검토」 『신라문화』 28, 2006, 272~275쪽 참조.
- 47) 신종원, 「안홍과 신라 불국토설」 『중국철학』 3, 1992, 167~189쪽(『신라초기 불교사연구』, 민족사, 1992, 232~249쪽.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쓴 것이 『신라 최초의 고승들』, 민족사, 1998의 130~138쪽에서 그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 48) 『해동고승전』 권2 「안함전」 “천왕이 불러 친히 보고 크게 기뻐하여 칙명으로 대홍선사에 머물게 하였다. 단시일 내에 깊은 뜻을 훤히 깨달았다. … 십승의 비법과 (법화)현의, 진실한 문장을 5년 동안에 두루 보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 뒤 27년(605)에 우전사문 비마라진제, 사문 농가타 등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왔으니, 서역의 호승이 직접 계림으로 온 것은 대개 이때부터였다.”

룡사에 머물면서 『梅檀香火星光妙女經』을 번역하였는데, 신라 승 曇和가 그것을 받아 적었다. 얼마 뒤에 중국 승려들이 글을 올려 중국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청하므로 왕은 허락하여 보냈다” 그 안홍은 아마 (안함)화상일 것이다.⁴⁹⁾

10) (진홍왕)37년에 … 안홍법사가 수나라에 들어가 구법하였다. 호승인 비마라 등 2인의 승려와 함께 돌아와 『능가경』·『승만경』 및 佛舍利를 바쳤다.⁵⁰⁾

각훈이 「안함전」을 찬술하면서 최치원이 쓴 「의상전」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 9)의 사료이고, 김부식이 이 기사를 축약해서 『삼국사기』 권4에 실은 것이 10)의 사료이다.

안함에 대한 기록에 있어, 안함의 귀국연대를 최치원은 625년 수나라가 아닌 당나라에서의 귀국이라는 杜撰을 한 반면, 김부식은 진홍왕 37년에 자리매김하면서도 수나라를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종원은 (10)의 『삼국사기』의 기사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즉 당시는(576) 수나라 건국 이전이므로 유학한 국명에 잘못이 있으며, 여타 구법승들과는 달리 편년 상의 출국과 입국 기사가 없이 유학간 그해에 돌아온 것처럼 쓰여져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안홍의 활동연대와 사상을 염두에 두면, 『삼국사기』 권4 진홍왕 37년조의 기사가 착오임이 분명하다고 언명하고 있다.⁵¹⁾

그런데 같은 내용의 기사를 최치원은 진평왕 건복 42년인 625년에 당나라에서 돌아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⁵²⁾

49) 『해동고승전』 권2 「안함전」

50) 『삼국사기』 권4 「진홍왕」 37년조

51) 신종원, 위의 논문, 168쪽.

52) 이 기사에 대해 조인성은 토론 과정에서 사료에 대한 의구심을 끝내 버리지 않았으나, 곽승훈, 「신라 말기 최치원의 승전 찬술」 『불교연구』 22, 2005, 213~219쪽에 기술된 「의상전」을 참조할 수 있고, 장일규, 「최치원찬 <부석

이렇게 안함의 귀국연대에 대해서는 진흥왕 37년인 576년의 『삼국사기』 설, 진평왕 47년인 625년의 최치원설, 그리고 진평왕 27년인 605년의 『해동고승전』설 등 다양한 견해가 나와 있다. 즉 최치원은 625년에 당에서 돌아왔다고 하였고, 김부식은 576년에 수에 들어가 구법을 하였다고 하였다. .

최치원이 수나라 대신 당나라에서 귀국하였다고 하여 당을 의식한 반면, 김부식은 수나라는 그대로 두되 연대에 있어 엉뚱한 곳에 위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김부식이 최치원의 기록을 보고 선택한 방법이 진흥왕 37년 조의 배치였다고 생각된다.⁵³⁾ 수나라의 건국이 581년임을 감안하여 5년간의 유학시기를 따져 576년으로 배치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605년 안함이 수나라에서 귀국한 일은 613년 수나라 사신 王世儀가 방문하여 황룡사에서 백고좌법회를 열었던 사건⁵⁴⁾ 만큼이나 신라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을 것이었다. 중국에서 사신이나 승려의 내방은 간혹 있는 일이었지만, 인도승려가 신라에 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전의 번역까지 이루어지고 신라 승이 필수까지 하였으므로, 신라사회는 이를 계기로 중국어는 물론 범어까지 외국어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원측과 같이 여러나라 말에 능통하였을 뿐 아니라 천축의 말을 듣고 중국어로 번역할 수 있었던 인물을 배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⁵⁵⁾ 신라사에서 본다면 버리기에는 가까운 사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바뀐 정국에서 신라 조정은 이들 수나라 유학승 출신의 親隋派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겨났을 것이다. 최치원의 저술에 나타난 안함에 대한 두찬은 이러한 그의 고민을 대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존자전>의 복원 시론」 『북악사론』 6, 1999, 43쪽에서도 인용하고 있다.

53) 김복순, 「수당의 교체정국과 신라 불교계의 추이」 『한국고대사연구』 43, 2006, 188~190쪽.

54) 『삼국사기』 권4 진평왕 35년 “가을 7월 수나라의 사신 왕세외가 황룡사에 와서 백고좌를 마련하고 원광 등의 법사를 청하여 불경을 강경하였다.”

55) 김복순, 「삼국시대의 불교교류」 『신라문화』 24, 2004, 186~187쪽.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수.당의 교체정국의 상황에서 동방의 성인으로서 평가된 안함에 관한 기사를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대로 서술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으로 보인다. 즉 안함의 친수적인 경향이 당나라에서 사환까지 한 최치원으로써는 신라가 당과의 외교가 긴밀한 상황에서 문제 삼아지지 않도록 사안의 조정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그가 찬술한 「법장화상전」이 중국인들 특히 당나라 사람들이 읽어볼 것을 염두에 두고 썼다는 사실에서, 「부석존자전」인 「의상전」 역시 당나라 사람들이 볼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의 사회개혁론에 주장되었을 인재등용에 관한 인식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최치원은 중앙정계에서 그의 포부가 실현될 수 없음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시무책을 내세워 신라 정치의 개혁을 원하였으나, 이 문제는 자신에 의해서는 실행될 수 없었다. 그의 시무책은 전하지 않으나, 그가 주장하였을 개혁론에 대해서는 많은 추정이 있었다.⁵⁶⁾ 이를 통해 볼 때, 그가 시무책을 통해서 주장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인재등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무염화상비문」에서 ‘能官人’⁵⁷⁾ 즉 제대로 사람을 임용하는 것을 크게 내세운 것은, 설총의 「화왕계」를 통한 인재등용 주장, 녹진의 충언, 낭혜 화상의 ‘능관인’을 이어, 그 자신도 시무책을 통해 인재 등용에 관한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어하였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골품제 하에서 신분보다 능력에 의한 적체적소의 인재등용이 그가 주장한 가장 중요요소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의 역사인식의 측면에서 유학자로서 관찰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유학자들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던 문제로서, 정치는 유학자들이 하고 임금은 인재를 능력에 맞게 잘 택해서 등용해

56) 이기백, 「신라 골품체제하의 유교적 정치이념」 『대동문화연구』 6·7합, 1969 ; 조인성, 최영성, 앞의 논문

57) 「무염화상비문」, 『고운집』, 338쪽에서 능관인을 ‘제대로 사람을 임용하는 것’으로 번역하였다.

써야 한다는 생각이 최치원에게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셋째로 그가 대문장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신라불교와 풍속 등을 한문문장으로 정리하려 한 점을 특기할 수 있다.

최치원은 귀국하자 그의 문장을 기대한 왕과 왕실, 사원으로부터 선사비문, 화엄결사문, 원문, 고승전기 등 많은 글들을 부탁받고 이를 쓴 바 있다. 그는 이 글들을 쓰면서 점차 신라 불교사를 정리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지증대사비문」에서 보이고 있다.⁵⁸⁾

그가 심혈을 기울여 쓴 「법장화상전」(904)은 자신의 글이 동아시아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명문장임을 나타내려고도 하였는데, 신라불교와 중국과의 관계 역시 정리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부석존자전」이 편린만 전하는 상황에서 이 글의 동아시아적 위치를 짚어 보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된다.

신라의 풍속을 한문문장으로 표현한 것은, 그가 당의 국제적인 문화에 신라문화를 소개 내지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미 경덕왕 대에 실패하기는 하였지만, 漢式으로 개혁하고자 하였던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노력한 측면이 최치원에게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신라의 이모저모를 한문문장으로 표현하여 기록으로 남겨 놓은 것이다.

이렇게 그에 의해 한문 문장으로 채록된 신라의 풍속과 불교관계 기사는 『삼국사기』 등에 빠져버린 고대문화를 보존해 주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이와 함께 流觴曲水터와 관련한 시인들의 詩會, 전국에 남긴 그의 친필 석각과 같은 측면은 신라의 문화를 국제적인 풍토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⁵⁹⁾

하지만 그의 이러한 노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 동인의식을 잘

58) 최병헌, 「신라 하대 선종구산과의 성립-최치원의 사산비명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7, 1972, 81쪽에서 최치원은 신라불교사를 3기로 구분하고 있다고 하였다

59) 김복순, 앞의 논문 『한국문화연구』 10, 2006, 25~30쪽.

표현한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하면,⁶⁰⁾ 신라문화를 개악한 처사라고 부정적으로 평가⁶¹⁾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적 관점에서 볼 때, 최치원의 이러한 노력은 신라문화를 세계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그에 대한 평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V. 맺음말

최치원의 역사인식을 김대문 사학과 김부식 사학의 가교로 보기도 하나, 그의 유학자로서의 측면은 김부식에게로, 효선쌍미적 인식과 최치원의 불교 관계 내용은 일연에게 영향을 끼쳤으므로, 그들의 저술 속에서 최치원의 역사인식을 되짚어 낼 수 있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보이는 최치원의 역사인식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우선 그는 한국상고사에 있어 기자를 가장 멀리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삼국사기』에서 기자를 상한으로 삼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김부식이 유학자로서의 최치원의 인식과 그 궤를 같이 한 때문으로 보았다. 반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삼한과 관련한 ‘마한-고구려’, ‘변한-백제’, ‘진한-신라’의 내용을 적극 수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왕연대력』에 보이는 왕호의 인식이 김부식에서는 사실주의에 입각한 진전된 모습으로 바뀐 반면에 일연은 최치원설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비견해 보았다. 태조무열왕의 강조는 두 사서가 같은데, 『삼국사기』에서는 문무왕의 당과의 결전을 특기하여 신라의 독자성을 크게 부각시킨 면이 진전된 모습

60) 유승국, 「최치원의 동인의식에 관한 연구」 『동과 서의 사유세계』, 1991 ; 최영성, 「고운 최치원의 동인의식」 『동양철학의 자연과 인간』, 1998.

61) 김철준, 「고려 중기의 문화의식과 사학의 성격」 『한국사연구』 9, 1973, 81~82쪽.

임을 밝혀 보았다. 그리고 최치원은 유학자이기는 하지만 유불도 3교의 회통적 인식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고려조 전반을 거쳐 비슷한 유형의 학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특히 효선쌍미적인 인식을 선사들의 비명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일언이 『삼국유사』에서 「효선」편을 설정한 것과도 같은 맥락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이었다.

최치원 역사인식의 또 다른 측면은, 그가 합리주의를 표방하는 유학자로서 그의 역사인식이 매우 현실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나라를 중심에 둔 세계관, 즉 당 연호의 중시라든가 당 중심의 외교관계 등을 기본 바탕으로 한 것에 주의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최치원과 김부식에 의해 杜撰된 수유학승 안함의 귀국연대 기사를 정리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인재등용의 문제, 신라문화의 한문 문장으로 표기한 문제 등을 들어 보았다. 특히 그에 의해 한문 문장으로 채록된 많은 불교관계 기사는 고대문화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러한 최치원의 역사인식으로 볼 때, 비록 그는 신라인이었지만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실적인 역사서술을 남겨놓음으로써, 한국의 역사가로서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정도의 역사인식을 소유한 인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계원필경집』, 『동문선』, 『신증동국여지승람』, 『고려명현집』, 『최문창후전집』, 『栗水縣志』, 『楊州志』

최준옥 편, 『국역 고운선생문집』 상·하, 보림각, 1982.

김지건, 『사산비명 집주를 위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최영성, 『역주 최치원전집』 1·2, 아세아문화사, 1998·1999.

이지관 편,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신라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4.

파전한국학당 편, 『고운의 사상과 문학』, 1997.

이재운, 『최치원 연구』, 백산자료원, 1999.

한국사학회·동국대신라문화연구소 편, 『신라최고의 사상가 최치원 탐구』, 2001.

당인평 저, 마중가 역, 김복순 감수, 『최치원신연구』,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
구소, 2004.

곽승훈, 『최치원의 중국사탐구와 사산비명 찬술』, 한국사학, 2005.

장일규, 『최치원의 사회사상 연구』, 일조각, 2009.

최치원 지음, 이상현 옮김, 『계원필경집』(1)과 『고운집』, 2009.

강돈구, 「포석정의 종교사적 이해」 『한국사상사학』 4·5합집, 1999.

곽승훈, 「최치원의 사산비명 찬술에 대한 시론」 『실학사상연구』 19·20,
2001.

_____, 「최치원의 중국사 탐구와 그의 사상동향-사산비명에 인용된 중
국역사사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17, 2001.

- _____, 「최치원의 중국역사탐구와 그의 마지막 행보-지증대사비명에 인용된 중국역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17, 2002.
- 김복순, 「최치원의 불교관계 저술에 대한 검토」 『한국사연구』 43, 1983.
- _____, 「최치원의 법장화상전 검토」 『한국사연구』 57, 1987.
- _____, 「중국내 최치원 유적과 계원필경」 『동악미술사학』 2, 2001.
- _____, 「최치원의 해외체험과 문화수용」 『한국문화연구』 10, 2006.
- _____, 「수·당의 교체정국과 신라 불교계의 추이」 『한국고대사연구』 43, 2006.
- _____, 「고려의 최치원 만들기-지증대사비의 건립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32, 2008.
- _____, 「최치원의 해외체험과 동아시아적 소통의 문제」 『신라문화』 33, 2009.
- 김시황, 「고운 최치원의 사산비명에 대하여」 『고운의 사상과 문학』, 1997.
- 김정배, 「삼한위치에 대한 종래설과 문화성격의 검토」 『사학연구』 20, 1968,
- 김중렬, 「최치원의 저작」 『한성어문학』 1, 1982.
- _____, 「최고운의 기덕시 연구」 『웅진어문학』 1, 1983.
- _____, 「최치원의 ‘격황소서’연구」 『동양고전연구』 2, 1994.
- 김철준, 「고려 중기의 문화의식과 사학의 성격-『삼국사기』의 성격에 대한 재인식-」 『한국사연구』 9, 1973.
- 김태식, 「心學者와 口學者 사이, ‘黃金榜’ 최치원의 딜레마」 『신라사학보』 10, 2007.
- 김철조, 「최치원의 「격황소서」에 대한 일고」 『동아인문학』 9, 2007
- 남동신, 「羅末麗初 전환기의 지식인 崔致遠」 『강좌 한국고대사』 8, 2002.
- 党銀平, 「新羅文人崔致遠『桂苑筆耕集』의文獻價値」 『신라사학보』 4, 2005.
- 문상기, 「최치원의 유·도교사상에 대한 고찰」 『고운의 사상과 문학』, 1997.
- 박병선, 「당대 한중 문인의 교류에 관한 연구-동국문종 최치원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46, 2003.

- 번태섭, 「고려의 문한관」 『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1983.
- 심경호, 「최치원과 동아시아 문학」 『고운학보』 창간호, 2003.
- 엄원대, 「최치원 연구사에 대한 분석」 『고운의 사상과 문학』, 1997.
- 유태일, 「계원필경집의 문헌학적 조명」 『고운의 사상과 문학』, 1997
- 이기동, 「나말여초 근시기구와 문한기구의 확장—중세적 측근정치의 지향」 『역사학보』 77, 1978.
- _____, 「신라 하대 빈공급제자의 출현과 나당문인의 교환」 『전해종박사화갑기념 사학논총』, 1982.
- 이기백, 「신라 통일기 및 고려 초기의 유교적 정치이념」 『대동문화연구』 6·7합, 1970.
- _____, 「신라 골품제 하의 유교적 정치이념」 『신라사상사연구』, 1986.
- 이도학, 「최치원의 고구려 인식」 『한국사상사학』 24, 2005.
- 이우성, 「남.북국시대와 최치원」 『창작과 비평』 38, 1975.
- 이재운, 「최치원의 정치사상 연구」 『사학연구』 50, 1995.
- _____, 「최치원의 유교관」 『백산학보』 46, 1996.
- _____, 「고운 최치원의 삼교통합론」 『선사와 고대』 9, 1997.
- _____, 「제왕년대력을 통해 본 최치원의 역사인식」 『전주사학』 6, 1998.
- 장일규, 「신라 말 경주최씨 유학자와 그 활동」 『사학연구』 45, 1992.
- _____, 「최치원찬 부석존자전의 복원 시론」 『북악사론』 6, 1999.
- _____, 『최치원의 사회사상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_____, 「최치원의 신라 전통인식과 제왕년대력의 찬술」 『한국사학사학보』 6, 2002.
- _____, 「최치원의 저술」 『북악사론』 10, 2003.
- _____, 「최치원의 귀국 후 활동과 은둔」 『사학연구』 76, 2004.
- _____, 「최치원의 화엄승전 찬술과 해인사 화엄사상」 『신라사학보』 창간호, 2004.
- _____, 「최치원의 삼교융합사상과 그 의미」 『신라사학보』 4, 2005.
- 전기웅, 「신라말의 개혁과 최치원」 『신라사학보』 5, 2005.

- 조법중, 「고구려의 마한계승 인식론에 대한 검토」 『한국사연구』 102, 1998.
- 조인성, 「최치원의 역사서술」 『역사학보』 94·95합, 1982.
- 채상식, 「최치원의 불교인식」 『고운의 사상과 문학』, 1997.
- 최병현, 「신라 하대 선종구산파의 성립」 『한국사연구』 7, 1972.
- _____, 「고운 최치원 연구의 문제점과 과제」 『원불교사상』 21, 1997.
- 최영성, 「최치원 사상형성의 역정에 대한 고찰」 『동양고전연구』 10, 1998.
- _____, 「고운 최치원의 동인의식」 『동양철학의 자연과 인간』, 1998.
- _____, 「최치원 시무책의 건의 배경에 대한 고찰」 『사학연구』 58·59합, 1999.
- _____, 「최치원의 승전 찬술과 그 사상적 함의-법장화상전과 보덕화상전을 중심으로」 『한국의 철학』 28, 2000.
- _____, 「고대 생명사상의 원류와 생성-최치원사상과 관련하여」 『신라사학보』 7, 2006.
- 최일범, 「고운 최치원의 사상연구-삼교관을 중심으로-」 『동방사상논고』, 1984.

Abstract

A Study on Choi Chi-Won's Historical Cognition

Bok-Soon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strate Choi Chi-Won's historical cognition. In order to fulfil the purpose, I mainly examined his life and writings. This approach is based on my opinion which regards the process where he, as a confucianist, formed realistic rationalism as the background of his historical cognition.

I explained his historical cognition by dividing it into two aspects.

First, I examined his historical cognition by focusing on his writings introduced in "Samkuksagi" by Kim Boo-Sik and "Samkukyusa" by Ilyeon. These writings have been continually studied because of their influences on other scholars after him. The discussions about this aspect are focused on the three parts.

The first discussion is Choi's cognition on the Korean ancient history. He put the period of "Gija" on the top of the history. This kind of understanding is same as that of Samkuksagi because Kim Boo-Sik's historical cognition is almost same as that of Choi Chi-Won. Also, Samkuksagi and Samkukyusa reflect Choi's historical cognition which accepts the relation between "Mahan" and "Kokuryeo," between "Byunhan and Backjye," and between "Jinhan and Silla."

The second discussion is the relation between China and Silla and

* Prof., Dep. of Korean History, Dong-Kook University

"Jyewangyeondaeryuk." Kim Boo-Sik changed Wangho's historical cognition showed in Jyewangyeondaeryuk into the realistic understanding. However, Samkukyusa by Ilyeon followed partly the Choi's understanding. The above two historical books emphasize the role of Mooyulwang; however, Samkuksagi can be understood as some more advanced historical book, compared with the Choi's understanding of history, in the sense that the book emphasizes the independency of Silla by mentioning Munmuwang's decisive battle against Dang.

The third discussion is the understanding about relations among the three religions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and "Hyosunsangmi (two main values, filial piety and Zen)." Choi Chi-Won understood that the three religions could be communicated each other, although he was a confucianist. Most of scholars showed this kind of understanding during the first part of Koryeo dynasty. Choi explained the values of filial piety and zen in the epitaphs of the previous Buddhist priests. This is very similar as the fact that Samkuyusa includes the chapter of filial piety.

Second, I discussed Choi's historical cognition showed in his writings, including "Gyewonpilgyungjip." In this part, I argued that he showed Dang-centered historical cognition. This was resulted from the fact that he, as a rationalist, realistically understood history. This kind of his understanding is showed in his emphasis of Chinese reign style and the foreign relations centered to Dang dynasty. Thus, I readjusted the year (reported by Choi-Chi-Won and Kim Boo-Sik) which Anham, a Buddhist priest, returned to Silla.

In addition, I illustrated that Choi's study on social reform was focused on the recruit system of the capable men. I also stated that he wrote in Chinese characters which the East Asian people could understand.

Although he had Silla's nationality, he explained history in the

international point of view. This reflects that he, as a historian, had a ground breaking historical cognition at that time.

Key Words : Choi Chi-Won's historical cognition, "Gyewonpilgyungjip.", "Samkuksagi" by Kim Boo-Sik, "Samkukyusa" by Ilyeon, Choi's cognition on the Korean ancient history, "Jyewangyeondaeryuk", relations among the three religions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Chinese reign style, Anham, the recruit system of the capable men